

전남지역 구전 생물자원 건강지식 집대성

〈口傳〉

배탈에는 씩씩, 관절통에는 쇠무를 뿌리, 붓기 빼기엔 호박 국립생물자원관 5556건 발굴... '전통지식' 홈페이지 공개

전남지역에서 조사 대대로 입으로 전해 오던 전통건강지식이 집대성 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5일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전남지역 생물자원 전통지식을 조사해 총 2539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다도해해상(고흥·여수), 무등산, 월출산 국립공원 지역 106개 마을에 사는 어르신 299명(평균 79.1세)을 대상으로 개별 또는 집단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관속식물, 어류, 무척추 동물에 속하는 340여 종의 생물자원이 약용·생활용·식용·어로용·제충용 등 다양한 전통지식과 관련돼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굴된 2539건에 과거 2차례(2010년 지리산국립공원, 2017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 발굴한 3017건을 더해 총 5556건의 전통지식을 활용빈도·중요도 등 4가지 가치지수(전통지식에 이용되는 생물자원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보는 분석방법)로 분석했다.

가치지수별로 상위에는 씩씩, 호박, 배탈, 쇠무리, 쇠무늬, 호박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전통지식 적용 사례로는 배탈·설사·복통 또는 코피가 날 때 씩씩을 마시거나 씩씩 잎을 으개 붙이기, 부스럼이나 종기에는 느릅나무 껍질 붙이기, 두드러기에는 벗짚을



부스럼·종기에 효과가 있는 느릅나무.



배탈·설사 또는 지열에 사용하는 씩.

태운 연기 쐬기, 허리나 무릎 관절이 아플 때에는 쇠무를 뿌리 달여 먹기, 아기를 낳고 몸이 부을 때는 호박을 먹기 등이 있다.

또 오줌을 자주 쌀 때는 가물치를 고아 먹였으며, 허리가 아플 때는 왕지네를 먹는 등 동물자원에 대한 전통지식도 발굴됐다.

지금까지 발굴된 전통지식 10만여 건을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

(species.nibr.go.kr)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병직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은 "전남 지역에 전통지식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의 고령화와 이를 계승할 젊은세대들이 부족해 전통지식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국립공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생물자원 전통지식 조사를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평나비축제 오늘 개막 함평나비축제 개막을 하루 앞둔 25일 함평 엑스포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울긋불긋 피어난 다양한 꽃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나비축제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 초·중·고 4곳 중 1곳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 위반

광주 초·중·고교 4곳 중 1곳 이상이 학생자치회 예산편성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7개 초·중·고교 가운데 79곳(25.8%)이 학생자치회 예산 의무편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회가 구성원 의견 수렴을 하고 임원회의를 여는 등 기본 활동만 해도 경비가 소요된다"며 "운영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적은 것은 학교가 학생자치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학생회 공약사업, 학생 복지사업보다는 임원 수련회 등 일회성 동원 행사에 식비, 숙박료 등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회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거나 추경에서 절반 이상 삭감하는 학교도 있었다. 광주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학교 표준운영비의 0.5% 이상을 학생자치회 운영비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마련했다. 학교 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침대로 편성하면 100만~300만원 규모다.

시민모임은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학생 예산참여제도 도입, 학생자치교육 활성화, 학생자치회 예산·결산 실태조사를 제안한다"며 "현행 초·중·고교교육법은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 조작 기업 전수조사·처벌 촉구

환경단체 7개 도시서 성명서

전국 환경단체들이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 사건과 관련, 처벌 강화와 관리·감독시스템 전면 점검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광주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허술한 대기오염물질 사업장 관리 시스템을 규탄하고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

위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여수산단 등 전남 지역을 비롯한 서울 광화문 광장, 포스코 포항제철소 앞, 전주 새만금지방환경청, 충남 홍성 충남도청 브리핑실, 대전 금강유역환경청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환경단체는 성명을 통해 배출조작 범법 기업에 대한 처벌강화, 미세먼지 관리·감독 시스템 개혁,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 등을 요구했다. 광주환경연합 관계자는 "이번에 드러난 오염물질 배출조작 범주는 일부 기업만의 일탈 행위가 아닌 현행 대기오염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현재까지 진지한 논의를 찾아 볼 수 없는 국회는 조속의 산업시설 배출조작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바로 세우라는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8 달뜨기 00:57
해질 19:14 달집 11:07

우산 챙기세요

대체로 흐리고 때때로 비 떨어지는 곳 있겠다.

광주	구름많고 한때비	10/13	보성	흐리고 한때비	7/14
목포	구름많음	10/12	순천	흐리고 가끔비	10/17
여수	가끔흐리고비	11/15	영광	구름많음	8/12
나주	구름많고 한때비	8/13	진도	구름많음	9/13
완도	구름많음	10/14	전주	가끔흐리고비	10/14
구례	흐리고비	9/14	군산	구름많음	9/13
강진	구름많고 한때비	9/13	남원	흐리고비	10/14
해남	구름많음	8/12	흑산도	구름조금	9/12
장성	구름많고 한때비	8/1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2.0~3.0
안바다	서~북서	0.5~1.0	북서~북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서~북서	1.0~1.5	북서~북	1.0~2.5
남해 서부 앞바다(서)	서~북서	1.0~2.0	북서~북	1.5~2.5

◇ 생활지수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뇌졸중	보통	보통	보통
감기	보통	보통	보통
미세먼지	보통	보통	보통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2:23	06:56
여수	19:19	13:19

◇ 주간 날씨

27(토)	28(일)	29(월)	30(화)	5/1(수)	2(목)	3(금)
☀	☁	☁	☀	☀	☀	☀
8/19	10/18	11/19	13/22	12/20	12/23	11/23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남 음주적발건수 30% 줄어

일명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전남지역 음주운전 건수가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1186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00건) 대비 30.2% 감소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214건에서 올해 151건으로 29.4%, 사상자는 지난해 389명에서 246명으로 36.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음주운전 적발이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됨에 따라 대대적 홍보형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한 잔의 음주에도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안전한 운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다히로시마 원폭 피해 한국인 생존자 2283명

광주·전남 18명 생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한국인 2283명이며, 이중 광주·전남에는 18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한국인원자폭탄 피해자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된 생존자는 2283명이며, 광주 6명·전남 1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 725명(31.8%), 부산 504명(22.1%), 대구 326명(14.3%), 경기 184명(8.1%)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 1433명(63%), 80대 761명(33%)으로 나타났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